



2015 제3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제29권 제3호)

# 문화갈등과 경찰신뢰에 관한 연구

- 국내 거주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ltural Conflict and Confidence in Police  
- Focusing on the Marital Migrant women in the South Korea -

조상현\*·최재용\*\*·김순석\*\*\*

## 차례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

## • 국 문 요 약 •

이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 경찰 신뢰의 요인으로 논의되었던 변수들을 통제하고 결혼이민여성이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갈등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문화갈등과 경찰신뢰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구하였다. 조사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총 1,272부의 설문지를 이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표현적 시각의 변수들이 결혼이민

여성의 경찰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질서, 대인신뢰, 사회적지지망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범죄피해경험과 같은 도구적 변수만 투입되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던 문화갈등이라는 변수가 표현적 시각의 변수가 투입되어 통제되자 경찰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결과는 유사한 표현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라면 문화갈등이 오히려 경찰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경찰이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사 과정, 주저자.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 졸업, 공동저자.

\*\*\*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교신저자.

## I. 서론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로 일반가정(53.8%)보다 크게 높았다. 그리고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7명의 결혼이민여성들이 남편이나 주변 남성에게 의하여 참혹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혼이민여성 중 상당수는 인종적 차이로 인해 가시적인 식별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거나 상대적으로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기초질서·안전·범죄피해예방교육’, ‘생활속 범죄예방요령’, ‘범죄신고 요령’ 등 프로그램을 개설해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시급하게 관심을 두어야 할 과제가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신뢰에서 기인하는 경찰에 대한 정당성은 민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찰활동의 목표이다. 나아가 경찰신뢰는 법을 준수하는 행위, 경찰의 결정에 동의하는 정도, 경찰과 협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과 전반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sup>1)</sup>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신뢰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신뢰의 전이효과 때문이다. 2013년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총 55,780명이며 매년 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자본이론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소속된 집단(bonding group)이 가지고 있는

1) Jonathan-Zamir, T, & Weisburd, D, “The effects of security threats on antecedents of police legitimacy findings from a quasi-experiment in Israel”,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0(1), 2013, pp. 3-32.

신뢰의 정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는데, 결혼이민여성이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이는 경우 그들의 자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경찰신뢰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sup>2)</sup>

결혼이민여성이 갖게 되는 경찰에 대한 신뢰는 일반 국민들과 다른 형태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영미권에서는 인종에 따라 다른 경찰신뢰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노력해 왔으나<sup>3)</sup> 결혼이민여성과 같이 특수한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sup>4)</sup> 국내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역시 우울이나 자아효능감과 같은 개인적인 심리요인이나 가족관계나 교육 등 기타 사회현상에 주목했으나 경찰신뢰를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는 부재했다.<sup>5)</sup>

이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2) Putnam, R.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2001.

3) Huq, A. Z., Tyler, T. R., & Schulhofer, S. J, "Why does the public cooperate with law enforcement? The influence of the purposes and targets of policing.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7(3), 2011, p.419; Tyler, T. R, "Policing in black and white: Ethnic group differences in trus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Police quarterly*, 8(3), 2005, pp.322-342.

4) 윤경희,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5) 신정원, "임상미술치료가 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임상미술치료학연구* 8(2), 2013. 38-45쪽; 권명희,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2174-2197쪽; 장은애·최영,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정체성 유형과 생활만족도",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3호, 2010, 1-25쪽; 홍미기,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 경찰신뢰의 요인으로 논의되었던 변수들을 통제하고 결혼이민여성이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해 파생되는 변수인 문화갈등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종과 경찰신뢰

2014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129,233명이다. 국적별로 보았을 때,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여성이 5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베트남 출신이 26.4%, 필리핀 출신도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 인종에 관하여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인종적 소수자와 사회 내 주류 인종 간 경찰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며,<sup>6)</sup> 일찍이 Baley와 Mendelsohn(1969)의 연구에서부터 최근 Corriea(2010)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인종은 경찰에 대한 만족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연구되어 왔다.

인종적 소수자의 낮은 경찰신뢰에 대한 설명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이론적 모델이 갈등이론에서 도출되었다. 부정의감 모델(the sense-of-injustice)과 집단위치모델(group-position theory)이다.<sup>7)</sup> 부정의감 모델

---

6) Lai, Y. L. & Zhao, J. S., "The impact of race/ethnicity, neighborhood context, and police/citizen interaction o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pol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4), 2010, pp.685-692; Tyler, T. R., "Policing in black and white: Ethnic group differences in trus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Police quarterly*, 8(3), 2005, pp.322-342.

7) Blumer, H.,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Pacific Sociological*

은 개인의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형사사법체계의 경험을 통해 분화된다고 본다. 형사절차상에서 불공정함이나 차별을 경험했다고 인지하는 이들이 경찰신뢰가 낮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면 소수자, 인종, 특히 흑인계 미국인이 백인계 미국인에 비해 더 낮은 경찰에 대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sup>8)</sup>

반면에 Blumer(1958)는 인종에 따른 경찰신뢰의 차이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 속해 있는 전체적인 집단 위치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집단위치모델이라고 불리는데 집단의 위치에 따라 인종적인 태도가 달리 나타남을 설명하였다<sup>9)</sup>.

Bobo와 Hutchings(1996)는 개인이 스스로가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정체성, 집단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 선호하는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인지하고 있는 외부의 위협 등 복합적인 차원에서 집단위치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하면 같은 인종적 소수자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어떻게 상황을 인지하고 경험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식의 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우월감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다른 인종으로 구성된 집단의 구성원들을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여기고 낯설게 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결혼이

---

Review, 1958, pp.3-7.

8) Wu, Y., Sun, I. Y., & Triplett, R. A. "Race, class or neighborhood context: which matters more in measuring satisfaction with police?", *Justice Quarterly*, 26(1), 2009, pp.125-156.

9) Blumer, H.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958, pp.3-7 ; Kinder, D. R. & Sanders, L. M. "*Divided by color: Racial politics and democratic idea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민여성들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지원을 받았는가에 따라 그들이 인식하게 될 경찰신뢰라는 현상도 달리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인종과 문화적 그룹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를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어 왔으나<sup>10)</sup>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또한 국외에서는 상황적인 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꾸준히 소수인종의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내기는 했지만<sup>11)</sup> 정작 그 소수인종 내에서 어떠한 차이가 다른 수준의 경찰신뢰로 빚어지는지 설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다문화사회라는 격변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경찰활동의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문화갈등과 경찰신뢰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기존의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주자가 새롭게 속하게 된 사회에 경험을 통해 점차 변화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sup>12)</sup> 만약 결혼이민여성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적 신념, 관습, 행위, 그리고 정체성을 잘 수용한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으로 발전하

10) Huq, A. Z., Tyler, T. R., & Schulhofer, S. J., "Why does the public cooperate with law enforcement? The influence of the purposes and targets of policing.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7(3), 2011, p. 419.

11) Garcia, V., & Cao, L., "Race and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in a small c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2), 2005, pp. 191-199.

12) Williams, C. L., & Berry, J. W.,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1991, p. 632 ; Berry, J. W.,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2005, pp. 697-712.

고 이는 경찰에 대한 신뢰로 다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결혼이민여성과 경찰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드물기는 하지만 윤경희(2010)는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인식도가 낮을수록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갈등이 높아지는 역상관관계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의 인과적 선후관계를 고려하면 문화적 갈등이 경찰신뢰보다 우선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설령 이 상관관계가 역으로도 기능할지라도 여전히 문화갈등과 경찰에 대한 인식 간에는 상호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Zhou와 Bankston(1994)은 이주자들의 긍정적인 문화지향성이 사회자본의 형태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자본과는 별개로 문화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문화갈등의 영향요인이 경찰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모호한 까닭은 다른 경찰학 연구 흐름의 관행에서도 도출할 수 있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은 경찰신뢰에 미칠 수 있는 설명요인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면서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이라고 명명하였다.<sup>13)</sup> 범죄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에 강조해 경찰신뢰를 설명한 도구적 시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갈등은 오히려 결혼이민여성들이 사법

13) Jang, H., & Hwang, E.,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Korean people: An expressive model versus an instrument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2(4), 2014, pp. 306-323; 장현석,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2호, 2013, 213-236쪽; Jackson, J. & Bradford, B., "What is trus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Policing*, 4(3), 2010, pp. 241-248; Skogan, W. G.,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Reassurance or Accountability?", *Police Quarterly*, 12(3), 2009, pp. 301-318.



당국에 의지하고 더 기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표현적 시각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사회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등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표출되어 나타난다는 관점인데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경찰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난다는 상징주의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신뢰를 이해한다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할 문화적 갈등이 경찰신뢰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sup>14)</sup>

국내의 여러 연구들은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조명하고 의사소통, 부부 및 가족갈등, 정신건강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 파생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sup>15)</sup>. 이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가족의 영역이나 개인의 심리문제에 주로 국한해 사용되어 온 문화적 갈등 변수가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에서 또 표현적 시각의 관점에서 경찰기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3. 선행연구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이론적 모형 및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경찰신뢰에 미치

14) Reiner, R. "Policing a postmodern society", *The Modern Law Review*, 55(6), 1992, pp. 761-781.

15) 홍미기,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원서진·송인옥,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2011, 95-113쪽; 장은애·최영,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정체성 유형과 생활만족도",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3호, 2010, 1-25쪽.

는 영향요인과 관련된 부분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검토해보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Hagan와 Albonetti(1982)는 사회 구조적 수준이 올라가면 백인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일한 연구에서 부유한 흑인은 가난한 흑인에 비해 경찰에 대한 더 낮은 지지를 보였다.<sup>16)</sup> 그러나 Priest와 Carter(1999)는 경제적, 교육적 수준이 높은 이들은 인종과 관계 없이 경찰의 평가에 있어 더 우호적인 평가를 낸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령 역시 경찰신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 중 하나인데 장현석(2014)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표준화 계수가 0.194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가장 크게 경찰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소한 사람들이 경찰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Gaines와 Kappler(2011)는 젊은 사람들이 더 자유 지향적이고 늙은 사람들이 더 안전 지향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경찰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에 비해 더 위험한 생활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의 존재를 달갑지 않아할 것으로 보았다.

도구적 시각의 관점에서 경찰신뢰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은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도 통제되어야 할 핵심 변수이다. Cao와 그의 동료들(1996)은 피해경험과 범죄두려움이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보다 경찰에 대한 신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피해경험의 효과가 인종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도

16) Hagan, J. & Albonetti, C. "Race, class, and the perception of criminal injustice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82, pp. 329-355.

했는데 백인의 경우에는 피해경험이 경찰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흑인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는 깨진 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의 틀 안에서 보았을 때 경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sup>18)</sup> 실제로 Craen(2012)은 무질서(incivility)가 인종적 소수자들의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현상을 두고 Jackson과 그의 동료들(2009)은 표현적인 관점에서 무질서를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어떠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무질서가 경찰이 통제력을 잃었다든가 의도적으로 지역사회를 방치했다고 여기게끔 만듦으로써 경찰신뢰를 낮추는 데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19)</sup>

Tewksbury와 West(2001)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지역의 성격에 사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 공동체에 사는 사람일수록 경찰들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변수들을 통제하고 여전히 문

17) Apple, N, & O'Brien, D. J, "Neighborhood racial composition and residents' evaluation of police performanc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1(1), 1983, pp.76-84.

18) Kelling, G. L, & Coles, C. M, "*Fixing broken windows: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 Simon and Schuster, 1997 ; Wilson, J. Q, & Kelling, G. L,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249(3), 1982, pp. 29-38.

19) Cao, L., Frank, J., & Cullen, F. T, "Race, community contex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5(1), 1996, pp.3-22 ; Skogan, W. G,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Reassurance or Accountability?", *Police Quarterly*, 12(3), 2009, pp.301-318.

화갈등이라는 변수가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주요한 관심으로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전국 각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구했고 지방경찰청이 담당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여성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에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는 2013년 9월 한 달 동안 수행되었으며, 전국 각 지방경찰청의 담당자로부터 총 1,326부의 설문지를 인수받았으며,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한 번호로 표기한 경우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총 1,27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변수설명

##### 1) 종속변수

최근의 경찰신뢰 연구들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연구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를 다양한 차

원에서 세분화 했다. 동기 기반 신뢰와 결과 기반 신뢰로 구분한 연구도 있었고<sup>20)</sup> 정당성과 만족<sup>21)</sup>으로 구분한 연구도 있었다. 장현석(2014)의 경우 경찰활동의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사람들은 경찰 활동에 협조적이며, 경찰을 신뢰한다”, “우리 동네 경찰은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이다”, “우리 동네 경찰은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범인을 반드시 잡아 줄 것이다” 등 네 가지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간 활용되어 오던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만족도나 경찰신뢰를 더욱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우리 지역경찰은 범죄발생 시 신속히 출동한다”, “우리 지역경찰은 순찰활동 등 방법활동을 열심히 한다”, “우리 지역경찰은 외국인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 등 5 문항을 통해 측정했다. 윤경희(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값(Cronbach  $\alpha$ )은 0.928이었다.

## 2) 통제변수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결혼이민여성이므로 기본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과 혼인상태는 통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크게 4가지로 고국학력, 한달수입, 나이,

20) Tyler, T. R.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nnu. Rev. Psychol.*, 57, 2006, pp.375-400 ; Tyler, T. R. & Huo, Y. “*Trust in the law: encouraging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urts through*”, Russell Sage Foundation, 2002.

21) Hinds, L. & Murphy, K.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e: Using procedural justice to improve police legitimacy”,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0(1), 2007, pp.27-42.

살고 있는 지역의 유형 등이다. 먼저 고국학력은 1) 초등학교 중퇴/졸업, 2) 중학교 중퇴/졸업, 3) 고등학교 중퇴/졸업, 4) 대학교 중퇴/졸업, 5) 대학원 중퇴/졸업 형식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한달수입은 서열척도로서 1) 100만원 미만, 2)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3)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4) 200만원이상 250만원이하, 5) 2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6) 300만원 이상의 응답으로 측정하였고 이외의 값은 결측처리되었다.

나이는 서열척도로서 1) 15세이상 20세이하, 2) 21세이상 25세이하, 3) 26세이상 30세이하, 4) 31세이상 35세이하, 5) 36세이상 40세이하, 6) 41세이상 45세이하 7) 46세이상 50세이하, 8) 51세이상 55세이하, 9) 56세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살고 있는 지역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유형이 대도시거나 중소도시면 1, 그 외의 농어촌은 0으로 코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들은 크게 도구적 시각의 요인들과 표현적 시각의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도구적 시각의 요인들은 직접범죄피해경험과 대리범죄피해경험, 범죄두려움을 포함하였다. 직접범죄피해경험은 응답자 스스로가 피해경험이 있는지 묻는 것으로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든 적이 있다”, “집안에 강도가 든 적이 있다”, “집밖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등을 당한 적이 있다”, “집밖에서 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의 8개 문항에 한 번이라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도록 더미 코딩하였다.

대리범죄피해경험은 자신이 직접 당한 범죄피해가 아니라 가까운 주

변 사람,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범죄피해 소식 등을 접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리범죄피해경험 관련 요인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 즉, 친구, 친척, 가까운 이웃의 범죄피해경험을 물었고, 측정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절도·강도·소매치기·폭행·성폭행으로 나누었다. 강도와 소매치기의 경우 장소를 집 안과 집 밖으로 구분하여 따로 측정했고, 폭행과 성폭행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면식이 있는 사람인지 면식이 없는 사람인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8개의 문항에 한 번이라도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가지도록 더미 코딩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두려움을 총 10가지 유형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 범죄두려움을 측정하는 2개의 문항과 구체적 범죄두려움을 측정하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Ferraro(1995) 등의 제안에 따라 일반적 범죄두려움이 아닌 구체적 범죄두려움만을 사용하였다. 범죄두려움은 지역무질서 두려움과 절도·강도·소매치기·폭행·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누었으며, 강도와 소매치기의 경우 장소를 집 안과 집 밖으로 구분하여 따로 측정했고, 폭행과 성폭행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면식이 있는 사람인지 면식이 없는 사람인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척도는 1) 매우 그렇다에서 5) 전혀 아니다까지 선택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역코딩하여 값이 높을수록 높은 정도의 두려움을 의미하게 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신뢰도 값(Cronbach  $\alpha$ )이 0.944로 매우 높아, 이 연구에서는 이를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현적 시각의 요인들로 이 연구에서는 무질서, 대인신뢰, 사회적 지지를 포함하였다. 먼저 무질서는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에는 노숙자, 불량배, 술 취한 사람이 많다” 등 두 개의 문항에 1) 매우 그렇다에서 5) 전혀 아니

다까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측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값이 높을수록 높은 정도의 무질서를 의미하게 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항목수가 2개뿐인데도 신뢰도 값(Cronbach  $\alpha$ )이 0.727로 나와 이 연구에서는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대인신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인신뢰 즉,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관련해서 “진실한 친구는 어디서나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우호적이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친절하고 협조적이다”라는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신뢰도 값(Cronbach  $\alpha$ )은 0.731이다.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측정문항은 장준오·이정환(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 신뢰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구자숙과 그의 동료들(2003) 그리고 윤경희(2010)가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에게 맞게 구성한 사회적 요인들을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장현석(2014)의 지역사회응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지지망은 “나는 이웃주민들과 사이가 좋다”, “나는 이웃주민들에게 나의 출신국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문제나 행사 등이 있을 때 잘 참여한다”, “이웃주민들은 내가 힘들 때 잘 도와준다”, “나는 이웃주민 외에 한국인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나는 도와줄 상담기관이나 사회기관에 잘 참여한다”의 6문항에 1) 매우 그렇다에서 5) 전혀 아니다까지 선택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신뢰도 값(Cronbach  $\alpha$ )은 0.863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 3) 독립변수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문화갈등이다.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 갈등은 “나는 한국의 문화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해 이웃 주민이나 한국인들과 자주 충돌한다”,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은 나와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나를 자주 무시한다”,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은 나를 외국인이라고 무시한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생활관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의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인들은 나를 같은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7문항에 1)매우 그렇다에서 5)전혀 아니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갈등에 방점을 두고자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했다. 신뢰도 값(Cronbach  $\alpha$ )은 0.861로 나와 신뢰도에 문제가 없었다. 여기서 사용한 측정문항은 윤경희(2010)의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참조하였다.

〈표 1〉 주요 요인별 신뢰도 분석

| 평가요소   | 세부설문항목   | Cronbach's $\alpha$ |
|--------|--|---------------------|
| 경찰 신뢰  | 우리 지역경찰은 범죄발생시 신속히 출동한다                              | 0.928               |
|        | 우리 지역경찰은 순찰활동 등 방법활동을 열심히 한다                         |                     |
|        | 우리 지역경찰은 외국인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                        |                     |
|        | 외국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자지원을 위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        | 외국인 자녀의 범죄피해(학교폭력, 성폭력 등)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 범죄 두려움 |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올까봐 두렵다                               | 0.944               |
|        | 집안에 강도가 들어올까봐 두렵다                                    |                     |
|        | 집밖에서 소매치기 등을 당할까봐 두렵다                                |                     |

| 평가요소   | 세부설문항목   | Cronbach's $\alpha$ |
|--------|--|---------------------|
|        | 집밖에서 상도를 만날까봐 두렵다                              |                     |
|        |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                     |
|        |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                     |
|        |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                     |
|        |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까봐 두렵다                      |                     |
| 무질서    |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 0.727               |
|        | 우리 동네에는 노숙자, 불량배, 술 취한 사람이 많다                  |                     |
| 대인 신뢰  | 진실한 친구는 어디서나 찾아낼 수 있다                          | 0.731               |
|        |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우호적이다                         |                     |
|        |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친절하고 협조적이다                          |                     |
| 사회적 지지 | 나는 이웃주민들과 사이가 좋다                               | 0.863               |
|        | 나는 이웃주민들에게 나의 출신국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                     |
|        |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문제나 행사 등이 있을 때 잘 참여한다          |                     |
|        | 이웃주민들은 내가 힘들 때 잘 도와준다                          |                     |
|        | 나는 이웃주민 외에 한국인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                     |
|        | 나는 도와줄 상담기관이나 사회기관에 잘 참여한다                     |                     |
| 문화 갈등  | 나는 한국의 문화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해 이웃 주민이나 한국인들과 자주 충돌한다   | 0.861               |
|        |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                  |                     |
|        |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                     |
|        |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은 나와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나를 자주 무시한다         |                     |
|        | 이웃주민이나 한국인들은 나를 외국인이라고 무시한다                    |                     |
|        |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의 생활관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                     |
|        | 한국의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인들은 나를 같은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다 |                     |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특성 및 기술 통계결과

〈표 2〉는 변수들의 기술 통계분석 결과이다. 먼저 종속변수인 경찰신뢰는 3.86으로 나타나 중앙값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는 민주 사회에 살고 있는 대개의 사람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고국의 학력은 2.99(표준편차=0.87)로 대개 결혼이민여성들이 중학교 중퇴/졸업 혹은 고등학교 중퇴/졸업 사이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달 수입은 평균 3.19(표준편차=1.44)로서 월평균 150만 원 이상 300만원미만이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소득임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의 나이는 3.78(표준편차=1.46)로 26세 이상 30세 이하 또는 31세 이하 35세 이하가 평균적인 연령으로 조사되었다. 또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이 69%로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상회하는 수가 도시에 살고 있었다.

도구적 시각의 요인 중에서 직접적으로 범죄피해경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20%였고 대리피해경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직접피해경험보다 많은 39%였다.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평균 2.61(표준편차=0.77)로 중앙값보다 높아 결혼이민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현적 시각의 요인으로 무질서는 평균 2.59(표준편차=0.78)로서 중앙값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대인신뢰는 평균 3.11(표준편차=0.65)로 나왔고, 사회적 지지는 평균값 3.19(표준편차=0.68)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문화갈등의 평균값은 2.74(표준편차=0.69)로 중앙값을 약간 상회하는 값을 보였다.

〈표 2〉 변수 기술통계량

(N=1272)

|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경찰신뢰           | 3.86 | .62  | 1   | 5   |
| 고국 학력          | 2.99 | .87  | 1   | 6   |
| 한달수입           | 3.19 | 1.44 | 1   | 6   |
| 나이             | 3.78 | 1.46 | 1   | 9   |
| 거주지역<br>(도시=1) | 0.69 | .46  | 0   | 1   |
| 직접범죄피해         | 0.20 | .40  | 0   | 1   |
| 대리범죄피해         | 0.39 | .49  | 0   | 1   |
| 구체적<br>범죄두려움   | 2.61 | .77  | 1   | 5   |
| 무질서            | 2.59 | .78  | 1   | 5   |
| 대인신뢰           | 3.11 | .65  | 1   | 5   |
| 사회적지지          | 3.19 | .68  | 1   | 5   |
| 문화갈등           | 2.74 | .69  | 1   | 5   |

## 2. 표본의 특성 및 기술 통계결과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핵심 독립변수인 문화갈등은 분석에 포함된 거의 모든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고 전통적인 도구적 시각의 변인과 표현적 시각의 변인들이 경찰신뢰와 갖고 있는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표현적 시각의 변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사회적 지지( $r = 0.253$ ,  $p < 0.001$ )은 경찰신뢰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5를 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조회한 결과 VIF값이 2.0을 넘는 변수가 발견되었다. 무질서인식은 VIF값이 2.707이고 구체적 범죄두려움은 VIF 값이 2.724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회귀분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두 변수 중 경찰신뢰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구체적 범죄두려움을 제외하고 분산팽창인자를 조회하였다. 조회 결과, 분산팽창인자가 2.0을 넘는 변수가 없어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회귀분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 = 1272)

| 변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고국학력       | 1        |          |          |         |         |          |          |          |          |         |       |    |
| 2. 한달수입       | .240***  | 1        |          |         |         |          |          |          |          |         |       |    |
| 3. 나이         | .225***  | .194***  | 1        |         |         |          |          |          |          |         |       |    |
| 4. 직접범죄피해     | .054*    | .010     | .091***  | 1       |         |          |          |          |          |         |       |    |
| 5. 대리범죄피해     | .031     | .034     | .124***  | .371*** | 1       |          |          |          |          |         |       |    |
| 6. 대인신뢰       | .085**   | .087**   | .057*    | -.059*  | -.084** | 1        |          |          |          |         |       |    |
| 7. 사회적지지      | .071**   | .064**   | .081**   | -.004   | -.086** | .331***  | 1        |          |          |         |       |    |
| 8. 구체적 범죄두려움  | .009     | -.072*   | -.017    | .228*** | .123*** | -.064*   | -.036    | 1        |          |         |       |    |
| 9. 무질서        | .001     | -.055*   | .003     | .207*** | .123*** | -.050    | -.044    | .793***  | 1        |         |       |    |
| 10. 거주지(도시=1) | .121***  | .164***  | .080**   | .081**  | .104*** | .015     | -.102*** | .142***  | .183***  | 1       |       |    |
| 11. 문화갈등      | -.101*** | -.128*** | -.109*** | .142*** | .107*** | -.122*** | -.164*** | .325***  | .308***  | .057*   | 1     |    |
| 12. 경찰신뢰      | .013     | .017     | .023     | -.048   | -.034   | .251***  | .253***  | -.124*** | -.174*** | -.085** | -.010 | 1  |

\* p<.05; \*\* p<.01; \*\*\* p<.001

### 3.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경찰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와 여타 독립변수가 정규분포의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를 변형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그대로 실시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는 표준화계수( $\beta$ )와 그에 해당하는 t-값을 제시하여 변수들 간 기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델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도구적 시각의 요인에 해당하는 직접적 범죄피해경험과 대리피해경험을 가지고 경찰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구적 시각의 요인들에 더해 문화갈등 변수를 함께 투입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도구적 시각의 결혼이민여성 경찰신뢰도 영향요인 모델은 유의미하게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 -value=0.06)( $df = 7$ ).

그러나 표현적 시각의 요인들과 문화갈등을 동시에 투입한 모델2의 모델 적합도는 높은 유의도 수준을 나타냈다( $F$ -value=20.420)( $df = 10$ ). 뿐만 아니라 표현적 시각이 투입된 변수는 종속변수의 변량을 약 13.8%( $R^2 = 0.138$ ) 설명했다. 지역사회의 무질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경찰신뢰가 낮게 나왔다( $\beta = -0.185$ ,  $p < 0.001$ ). 이 결과는 Jackson과 Brandford(2009)이 먼저 수행한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연구결과이다. 장현석(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물리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경찰신뢰가 낮게 나왔다. 두 번째로 대인신뢰도 경찰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205$ ,  $p < 0.001$ ).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도 유의미하게 경찰신뢰와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188, p < 0.001$ ). 이는 Jackson과 Sunshine (2007)이 밝혔듯, 지역사회 안정성과 사회유대가 경찰신뢰에 다른 변수들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재확인한 연구결과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도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 모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결혼이민여성의 문화갈등이 표현적 시각이 함께 투입된 모델에서는 유의미하게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의 유의도를 보이는 영향요인으로 바뀐 점이다( $\beta=0.095, p < 0.001$ ). 이는 아마도 간접효과를 미치고 있던 기타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문화갈등이라는 영향요인이 가지고 있던 독립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4〉 경찰에 대한 신뢰도 다중회귀분석

(N = 1272)

|         | 모델1          |          | 모델2                |           |
|---------|--------------|----------|--------------------|-----------|
|         | $\beta$      | t-value  | $\beta$            | t-value   |
| 고국 학력   | .023         | .785     | .005               | .182      |
| 한달수입    | .017         | .592     | -.011              | -.411     |
| 나이      | .031         | 1.071    | .012               | .451      |
| 거주지(도시) | -.076        | -2.678** | -.027              | -1.004    |
| 직접범죄피해  | -.035        | -1.152   | -.014              | -.505     |
| 대리범죄피해  | -.031        | -1.028   | .005               | .163      |
| 문화갈등    | -.002        | -.057    | .095               | 3.360***  |
| 무질서     |              |          | -0.185             | -6.568*** |
| 대인신뢰    |              |          | 0.205              | 7.305***  |
| 사회적지지   |              |          | 0.188              | 6.619***  |
| (상수)    |              | 35.668   |                    | 20.026    |
| F값      | 0.06(df = 7) |          | 20.420(df = 10)*** |           |
| R2      | 0.011        |          | 0.138              |           |

\*  $p < .05$ ; \*\*  $p < .01$ ; \*\*\*  $p < .001$

지금까지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에 문화갈등을 더해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신뢰도 모형을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고 외국에서도 소수인종 내 경찰에 대한 신뢰도 영향요인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에 이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혼이민여성 표본을 바탕으로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유관한 변수인 문화갈등이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이 통제된 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다.

##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어오던 변수 이외에 결혼이민여성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파생하는 문화갈등이라는 변수가 경찰에 대한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나아가 이 연구는 경찰신뢰의 조작적 정의에 있어 좀 더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자 시도했다. Jackson과 Bradford(2010)는 경찰이 반사회적 행동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통해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물었고 다른 연구들은 지역 경찰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통해 전반적인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묻기도 했다.<sup>22)</sup> 이번 연구에서는 단문 항목으로 경찰신뢰를 묻기보다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경찰신뢰 측정을 통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표현적 시각의 변수들이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질서, 대인신뢰, 사회적지지망은

22) Jackson, J. & Bradford, B. "What is trus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Policing*, 4(3), 2010, pp. 241-248.



상대적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범죄피해경험과 같은 도구적 변수만 투입되었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던 문화갈등이라는 변수가 표현적 시각의 변수가 투입되어 통제되자 경찰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결과는 유사한 표현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라면 문화갈등이 오히려 경찰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경찰이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단순하게 경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갈등이 높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무질서에 노출되어 있거나, 대인신뢰가 낮거나,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은 사람에게 문화갈등이 경찰신뢰에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까닭은 사회 내에서 그들이 믿고 의지할 이들이 없으며 이로 인해 경찰에 의존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또 다른 대안적 설명도 가능하다. 문화갈등을 이제 더 이상 많이 느끼지 않는 이주여성들은 주류사회의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된 이들과 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낮은 경찰신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Michelson(2003)은 주류 사회에 대한 노출과 통합을 통한 문화동화의 역설적인 확증적 효과를 검증했다. 새로운 사회를 더 이해함에 따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순과 문제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화갈등은 더 이상 느끼지 않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은 것이다. 이는 높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멕시코인들이 오히려 더 낮은 경찰신뢰를 보였다는 Correia(2010)의 연구와도 일맥 상통한다.

어떤 가설이 더 정확하게 문화갈등이 경찰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수 있는가와는 별개로 이 연구결과는 문화적응 단계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므로 더욱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이주자들의 경찰신뢰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주 전 그들이 겪은 사회이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기존에 자신이 있던 경험을 반추하고 대조하면서 사회를 이해하는 이중초점렌즈(bifocal lenses)가 생기는 것이다.<sup>23)</sup>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주자들의 출신 국가와 지역의 성격이 어떤 곳인지 함께 고려가 필요하고 앞서 결혼이민여성의 문화갈등이 미치는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을 더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모색을 기대한다. 인종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미국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sup>24)</sup> 특히 경찰에 대한 만족은 더욱 그렇다.<sup>25)</sup> 하지만 순수혈통에 대한 믿음, 오리엔탈리즘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소수인종들을 위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 Chu, D. C. & Huey-Long Song, J. "Chinese immigrants' perceptions of the police in Toronto, Canada.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1(4), 2008, pp.610-630 ; Correia, M. E.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police of Latino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1), 2010, pp. 99-107.

24) Wilson, W. J.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race: Blacks and changing American instit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25) Jesilow, P. Meyer, J. O. & Namazzi, 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4(2), 1995, pp.67-88.

- ◆ 주제어(Key Words) : 경찰에 대한 신뢰도(Confidence in Police), 문화갈등(Culture Conflict), 표현적 시각(Expressive Perspective), 도구적 시각(Instrumental Perspective), 결혼이민여성(Marital Immigrant Women)

〈논문 접수 : 2015. 10. 6, 심사 개시 : 2015. 11. 17, 게재 확정 : 2015. 12. 23〉

## 참 고 문 헌

### I. 국내문헌

- 구자숙·이현희·원영희·전영실,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사정책연구, 2003, 141-173쪽.
- 권명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2174-2197쪽.
- 신정원, “임상미술치료가 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임상미술치료학연구 제8권 제2호, 2013, 38-45쪽.
- 원서진·송인옥,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2호, 2011, 95-113쪽.
- 윤경희,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요인 탐색을 통한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 장은애·최영,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정체성 유형과 생활만족도”,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3호, 2010, 1-25쪽.
- 장준오·이정환,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1-224쪽.
- 장현석, “일반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 표현적 시각의 경찰신뢰도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2권 제2호, 2013, 213-236쪽.
- 장현석,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결정요인: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의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4호(단일호), 2014, 241-262쪽.
- 홍미기,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 II. 외국문헌

- Apple, N. & O'Brien, D. J. "Neighborhood racial composition and residents' evaluation of police performanc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1(1), 1983, pp. 76-84.
- Bayley, D. H. & Mendelsohn, H. "*Minorities and the police: Confrontation in America*"; New York: Free Press, 1969, p. 91.
- Berry, J. W.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2005, pp. 697-712.
- Blumer, H. "Race prejudice as a sense of group position",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958, pp. 3-7.
- Bobo, L. & Hutchings, V. L. "Perceptions of racial group competition: Extending Blumer's theory of group position to a multiracial social contex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6, pp. 951-972.
- Cao, L. Frank, J. & Cullen, F. T. "Race, community contex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5(1), 1996, pp. 3-22.
- Chu, D. C. & Huey-Long Song, J. "Chinese immigrants' perceptions of the police in Toronto, Canada.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31(4), 2008, pp. 610-630.
- Correia, M. E. "Determinants of attitudes toward police of Latino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1), 2010, pp. 99-107.
- Ferraro, K. F.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SUNY press, 1995.

- Gaines, L. K, & Kappeler, V. E. (2011). *Policing in America*. Routledge.
- Garcia, V, & Cao, L, "Race and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in a small c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2), 2005, pp. 191-199.
- Hagan, J, & Albonetti, C, "Race, class, and the perception of criminal injustice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82, pp. 329-355.
- Hinds, L, & Murphy, K,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e: Using procedural justice to improve police legitimacy",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0(1), 2007, pp. 27-42.
- Huq, A. Z, Tyler, T. R, & Schulhofer, S. J, "Why does the public cooperate with law enforcement? The influence of the purposes and targets of policing",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7(3), 2011, p. 419.
- Jackson, J, & Bradford, B, "What is trus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Policing*, 4(3), 2010, pp. 241-248.
- Jackson, J, & Sunshine, J, "Public Confidence in Policing A Neo-Durkheimian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2), 2007, pp. 214-233.
- Jang, H, & Hwang, E, "Confidence in the police among Korean people: An expressive model versus an instrument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2(4), 2014, pp. 306-323.
- Jesilow, P, Meyer, J. O, & Namazzi, 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4(2), 1995, pp. 67-88.
- Jonathan-Zamir, T, & Weisburd, D, "The effects of security threats on antecedents of police legitimacy findings from a quasi-experiment

- in Israel”,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0(1), 2013, pp. 3-32.
- Kelling, G. L. & Coles, C. M. “*Fixing broken windows: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 Simon and Schuster, 1997.
- Kinder, D. R. & Sanders, L. M. “*Divided by color: Racial politics and democratic idea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Lai, Y. L. & Zhao, J. S. “The impact of race/ethnicity, neighborhood context, and police/citizen interaction o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he pol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4), 2010, pp. 685-692.
- Priest, T. B. & Carter, D. B. “Evaluations of police performance in an African American sampl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7(5), 1999, pp. 457-465.
- Putnam, R.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2001.
- Reiner, R. “Policing a postmodern society”, *The Modern Law Review*, 55(6), 1992, pp. 761-781.
- Skogan, W. G. “Concern About Crime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Reassurance or Accountability?”, *Police Quarterly*, 12(3), 2009, pp. 301-318.
- Tewksbury, R. & West, A. “Crime victims’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s: An assessment in one urban community”, *Criminal Justice Studies*, 14(4), 2001, pp. 271-285.
- Tyler, T. R. “Policing in black and white: Ethnic group differences in trus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Police quarterly*, 8(3), 2005, pp. 322-342.

- Tyler, T. R.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nnu", *Rev. Psychol*, 57, 2006, pp. 375-400.
- Tyler, T. R. & Huo, Y. "*Trust in the law: encouraging publ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urts through*", Russell Sage Foundation, 2002.
- Williams, C. L. & Berry, J. W.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1991, p. 632.
- Wilson, J. Q. & Kelling, G. L.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249(3), 1982, pp. 29-38.
- Wilson, W. J.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race: Blacks and changing American instit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 Wu, Y. Sun, I. Y. & Triplett, R. A. "Race, class or neighborhood context: which matters more in measuring satisfaction with police?", *Justice Quarterly*, 26(1), 2009, pp. 125-156.
- Zhou, M. & Bankston III, C. L. "Social capital and the adaptation of the second generation: The case of Vietnamese youth in New Orlean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94, pp. 821-845.



< ABSTRACT >

## **A Study on the Cultural Conflict and Confidence in Police**

- Focusing on the Marital Migrant women in the South Korea -

Cho, Sang-Hyun · Choi, Jae-Yong · Kim, Soon-S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variables which affect confidence of marital migrant women towards police so that we can implement a way to improve the confidence. For this purpose, we control the variables emphasized on advanced studies and attempt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factors produced because of their special status. The data was drawn from 1,326 marital migrant women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expressive perspective such as incivility, confidence towards the public and social supports exerted stronger influences on confidence compared to instrumental perspective such as victimization experience. The most notable finding is that the cultural conflict which was not a significant variable when we only input instrumental variables became significant when we input expressive variabl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police policy should be implicated in the consideration of social context to raise the confidence in marital migrant women.